

전업주부들의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김명우* · 김성남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산업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미에 대한 아름다움을 차별화, 고급화, 전문화하고 포괄적인 것을 요구한다(김정희, 2000). 특히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요구는 모발의 물리적, 화학적 미용행위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발뿐 아니라 두피까지도 손상됨을 초래하여 탈모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성현, 2003). 또한 여성들의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부들의 출산 후로 인한 두피·모발의 손상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피·모발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반해 주부들의 두피·모발의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관리의 수준이 저조하며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피 유형, 모발손상정도, 탈모정도를 조사하였고,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관리의 중요도, 관리경험, 정보원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에 따른 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손쉽게 두피·모발 관리를 할 수 없는 전업주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미용마케팅 확립방향을 제시하고 전업주부들의 건강한 두피·모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업주부들의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는 것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한 실증적인 연구로 진행되었다. 측정척도는 윤주화(2005), 조성선(2001), 현애자(2003), 김지현(2005)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재인용하거나 본 연구의 조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포이동, 양재동, 경기도 분당, 광주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06년 6월 15일부터 7월 25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한 310부중 불성실한 응답 14부를 제외한 29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인구통계적 특성은 연령, 학력, 월평균 가계수입, 출산유무, 건강상태, 생활습관, 식습관으로 구성하였다. 두피·모발 관리인식은 두피·모발관리 중요도, 관리 경험, 정보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두피·모발 관리 태도는 조성선(200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 11.5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t-test,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연령분포는 20~30대가(66.9%)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46.3%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가계 소득으로는 250만원이상이 47.6%로 높았고 출산 유무는 출산한 경험이 있는 주부가 88.9% 응답하였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79.4%로 대다수의 주부들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생활습관은 규칙적이 62.5%, 식습관은 규칙적이 50.7%로 대체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두피유형은 20~30대는 지성두피가 31.8%, 건성두피가 29.3%로 많았고, 40~50대는 정상두피가 36.7%로 많았다.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따라 두피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규칙적(33.2%)일수록 정상두피가 많았고, 불규칙적(35.2%)일수록 지성두피가 많았다.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두피와 모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 idohair@skuniv.ac.kr

모발손상정도는 연령, 생활습관, 식습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는 모발이 건강하다는 응답이 47.0%로 나타났고, 손상된 편이라는 응답이 46.0%로 나타났다. 40-50대는 모발이 건강하다가 45.9%, 손상된 편이다가 42.9%로 나타났다. 따라서 20-30대가 40-50대보다 모발의 손상도가 더 심한 것으로 노후로 인한 자연스러운 손상보다 화학적인 시술로 인한 모발의 손상이 더 심한 것으로 보여 진다.

탈모정도는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에 심하다는 응답이 22.7%, 전혀 없다는 응답이 21.7%, 40-50대 심하다는 응답이 13.3%, 전혀 없다는 응답이 36.7%로 나타났다. 따라서 20-30대가 40-50대보다 탈모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탈모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관리 중요도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는 중요하다는 응답이 82.8%로 가장 높았고, 40-50대는 67.3%로 높았다. 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두피·모발관리의 중요도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피·모발 관리에 관한 정보를 얻는 매체로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0-30대는 30.8%가 TV를 통해서 40-50대는 36.7%가 주위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규칙적인 응답자 일수록 주위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관리 태도 요인을 살펴보면

요인1(19.70%)은 두피·모발 관리에 있어 전문적인 관리를 받았거나 염색을 자주 했거나 미용실에 가는 행위를 했을 때의 관리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모발관리' 로, 요인2(19.30%)는 펴거나 염색 후 두피나 모발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에 관련된 문항으로 '모발 제품' 으로, 요인3(10.04%)은 두피·모발에 대한 관심 항목으로 '모발 관심도' 로 명명하였다.

모발관리 요인은 학력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졸이하의 집단(3.12)보다 전문대 재학 이상의 집단(3.26)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학력이 높을 수록 두피·모발관리의 지식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여 두피·모발관리의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모발제품 요인은 건강상태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매우 건강한 집단(3.11)이, 건강 하지 않은 집단(3.03)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매우 건강한 집단이 건강하지 않은 집단보다 모발상태에 따른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관심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96명의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 특성과 관리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나이는 30대가 많았고, 학력은 4년제 대졸이상자, 월가계수입은 250만원 이상, 건강상태는 건강하고, 생활습관, 식습관이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두피·모발 특성은 생활습관, 식습관이 규칙적일수록 정상두피가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건강하고 규칙적일수록 모발손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에서 관리중요도는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관리경험은 대부분 없으며, 정보원으로는 20~30대는 TV, 40~50대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태도는 학력이 높고 건강할수록, 모발이 손상된 응답자는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보아 규칙적인 생활습관, 식습관이 두피·모발을 건강하고 윤기 있게 관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업주부들 대부분은 두피·모발관리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극적인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 전업주부의 특성을 고려한 저렴한 가격, 체계적인 전문점과 관리 시스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겠다.